

2006. 5. 8.(월) 배포

문의 / 정보통신인프라팀장 안근영 (750-1240)

우영규 사무관 (750-1241) leadk@mic.go.kr

2단계 광대역통합망(BcN) 시범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는 “광대역통합망(BcN) 2단계(2006~2007) 시범사업의 컨소시엄으로 데이콤 주관사의 ‘광개토’ 컨소시엄, SKT 주관사의 ‘UbiNet’ 컨소시엄, KT 주관사의 ‘Octave’ 컨소시엄, C&M을 중심으로 한 MSO연합이 참여하는 ‘케이블BcN’ 컨소시엄 등 4개(접수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3~5.4일 양일간 개최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모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되었다.

BcN 시범사업은 u-Korea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광대역통합 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 및 Bc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업이다.

통신·방송사, 제조업체, 솔루션/컨텐츠 업체 등으로 대규모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을 통하여 BcN 구축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합·융합 서비스를 중점 발굴하고,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상용화 확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편익 증진 및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IT 신성장산업 육성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주관사별 컨소시엄 구성 및 향후 시범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살펴보면,

데이콤이 주관사인 광개토 컨소시엄에는 파워콤, LGT을 포함하여 아크로메이트, 씨디네트웍스 등 장비·솔루션 업체와 데이콤 MI, 실미디어 등의 콘텐츠업체, 부천시청, 이화여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SKT가 주관사인 UbiNet 컨소시엄에는 하나로텔레콤을 포함하여 삼성전자, SK네트웍스 등 장비·솔루션 업체와 SK커뮤니케이션, 매일경제TV 등 콘텐츠업체, 대전시청, 충북대학교, ICU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KT가 주관사인 Octave 컨소시엄에는 KTF를 포함하여, 에드팍, 코오롱정보통신 등 장비·솔루션 업체와 다이렉트미디어, 헤리트 등의 콘텐츠업체, 성남시청, KAIST, 광운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2단계에서 신규로 공식 BcN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케이블BcN 컨소시엄은 C&M을 주관사로 T-Broad, CJ케이블넷 등 MSO와 LG전자, 매커스 등 장비·솔루션 업체 및 KMDC, Klabs, 한양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BcN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는 2년간 총 724억원의(최소 47.9억원, 최대 351.4억원) 자체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06년도 78억원, '07년도 78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1단계 시범사업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로, 정부의 지원예산은 1단계 86.5억 대비 80% 이상 증액되었으며, 민간 출연금도 1단계 397억원 대비 82% 확대된 규모로, BcN 구축에 대한 통신·방송사, 제조업체, 솔루션 및 콘텐츠업체 등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컨소시엄은 1단계 발굴된 BcN 서비스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추진하며, BcN 기반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계획이다.

제안된 주요 서비스로는 고품질 VoIP/영상전화, IPTV(T-Commerce, TV포털, T-Learning 등), 양방향데이터 방송, u-IT839전략 연계와 미래 u-Life 구현을 위한 u-Work, u-Learning(u-Class, u-Campus 등), u-Zone, 홈네트워크 활용 서비스 등 BcN 기반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형 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기술 검증, BcN 시범망 구축을 통해 올해 말부터 수도권 및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청도, 제주도 지역 등 7개 지역의 2,9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주요 BcN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술규격 마련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등을 활용한 상호연동 시험을 추진함으로써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현재보다 50배 빠른 50~100Mbps급의 광대역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u-IT839 전략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나아가,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 최초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2010년까지 53조원의 관련 투자를 유발하고, 장비생산 67조원 달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1부. 끝.

【참고】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서비스 제공계획

□ 컨소시엄 구성 내역 (접수순)

순번	컨소시엄명	주관사명	총 민간투자 (‘06년/’07년)	예상 참여업체
1	광개토	데이콤	110억원 (55억원 / 55억원)	° 통신사업자(LG텔레콤, 파워콤), 장비업체(아크로메이트), 솔루션업체(씨디네트웍스, 해든브릿지), 콘텐츠업체(데이콤멀티미디어 인터넷, 교육지대, 실미디어, 이비와이스쿨)
2	UbiNet	SKT	351.4억원 (144.3억원 / 207.1억원)	° 통신사업자(하나로텔레콤), 장비업체(삼성전자, 텔코웨어, 제너시스템즈, 셀런), 솔루션업체(SK네트웍스, SK텔링크, SK건설, 우암닷컴), 콘텐츠업체(SK&C, SK커뮤니케이션즈, 메일경제TV, 한국경제TV, CMB대전방송)
3	Octave	KT	214.7억원 (97.5억원 / 117.2억원)	° 통신사업자(KTF, 피보텍), 방송사업자(한국경제티브이), 단말사업자(에트팍, C&S테크놀로지, RGW(미정)), 솔루션업체(LPA, 디비웨이, 코오롱정보통신, 에드온모바일, 브리지텍, 해든브릿지, 프로시스트), 콘텐츠사업자(다이렉트미디어, 헤리트), 연구소/학계(광운대, 순천대), u-Work(한빛정보시스템)
4	케이블BcN	씨앤엠	47.9억원 (22.5억원 / 25.4억원)	° SO(T-Broad, DCC, HCN총청방송, CJ케이블넷), 제주방송), DMC(KDMC), 솔루션·장비업체(LG전자, 알티캐스트, 매커스), 연구기관(Klabs)
계			724억원 (319.3억원 / 404.7억원)	

□ 시범서비스 제공 계획

순번	컨소시엄명	시범지역 (가구수)	주요 서비스	시범서비스 제공일정
1	광개토	서울, 대전, 대구 (총600가구)	o 고품질 영상전화, 고품질 VoIP 서비스 등 o HD급 고현장감 영상회의, 멀티미디어 메신저 o WiFi 영상전화, CDMA-WiFi 연동 서비스 o u-Learning(커뮤니티 서비스 등) o TV 포털(T-Commerce, T-Banking, HD VoD, T-Info 등)	‘06.10월~
2	UbiNet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총 700가구)	o 메신저폰(소프트폰) 서비스 o WiBro-유선영상전화, EVDO-유선영상전화 연동서비스 o TV-PC-무선단말 연동 VOD, HDSOA 무선단말 TV포털 o TV포털(T-Game, T-Commerce, KoD 등)서비스 o u-Work, u-Learning, u-Zone, 전자정부 VoIP/VPN 서비스 o UCC(User Created Contents) 서비스, 홈Agent 서비스	‘06.9월~
3	Octave	서울, 대전, 광주 등 (총 900가구)	o 고품질 영상통화, 홈컨퍼런스, Biz-컨퍼런스 o 영상전화 응용(영상주문, 영상홍보 서비스 등) o e-예약, e-빌링, e-뱅킹, e-쇼핑, VoD, AoD 등 o TV포털(T-Commerce), T-Learning 서비스 등 o u-Work, u-Learning(u-Class, u-Campus 등) o u-농업 서비스, 전자정부 VoIP/VPN 서비스	‘06.10월~
4	케이블BcN	서울, 천안, 청주, 제주 (총700가구)	o HD VoD, HD-PVR, HD 채널서비스, T-Book o HD급 디지털케이블방송, HD 양방향데이터방송 o TV기반 연동형 VoIP 서비스(Click-Call, SMS 등) o 초고속인터넷 + Cable Home	‘06.9월~